Eugene's FICC Update
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준영_ 02)368-6136_ lee.jy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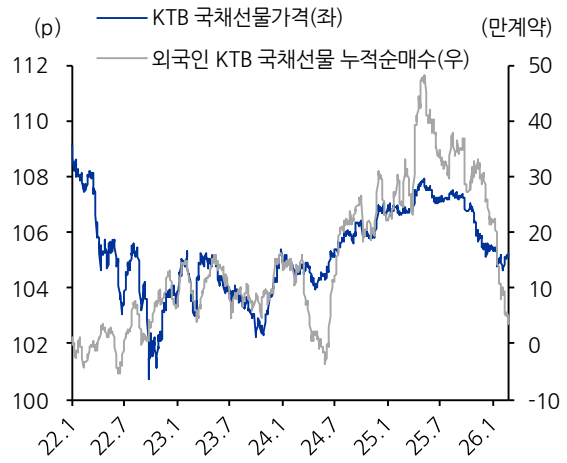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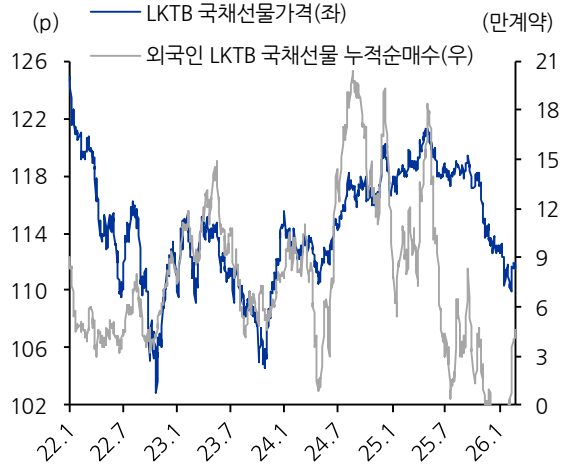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2/2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124%	-3.4	-1.8	17.1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556%	-3.7	-1.5	17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3.2	43.5	42.9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28	14.0	16.0	-16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1.92	37.0	22.0	-100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472%	0.9	0.9	0.0
	미국채 10년물	4.053%	2.1	-3.1	-11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8.1	56.9	62.1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706%	0.1	-3.2	-14.9
	호주국채 10년물	4.720%	2.3	-0.2	-3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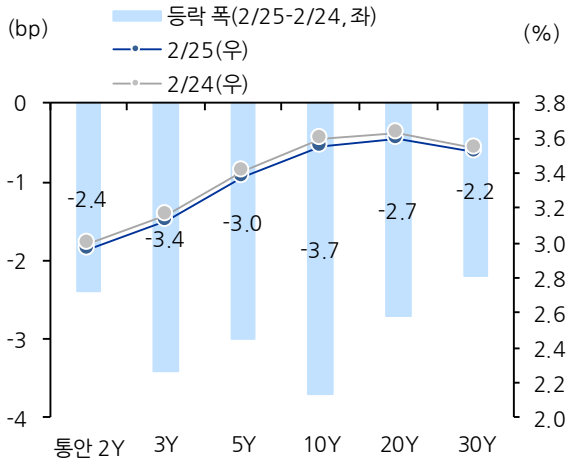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환율 급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유입 영향.
- 개장 직후 코스피가 6,000P를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 여전했지만 금리 하락 출발. 한은 금융시장국장 발언 이후 채권시장 투자심리 개선 중.
- 오후 이란과 미국 간 협상 타결 기대감과 위험자산 선호,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이 1,420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영향. 외국인, 3년과 10년 국채선물 순매수세 이어가며 금리 하락 견인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위험자산 선호 및 연준 상반기 동결 가능성 확대 반영.
- 경제지표 등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뉴욕증시 강세 등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자 이이 연동되며 금리 상승 지속. 국채 5년물 입찰은 부진하게 진행.
-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것도 영향. 세인트루이스 및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며 상반기 중 연준 동결 가능성 좀 더 높게 반영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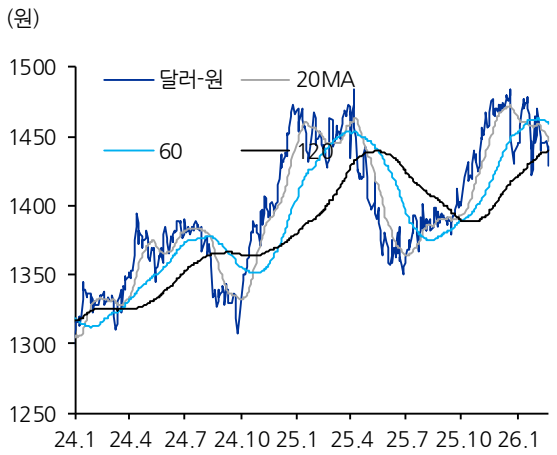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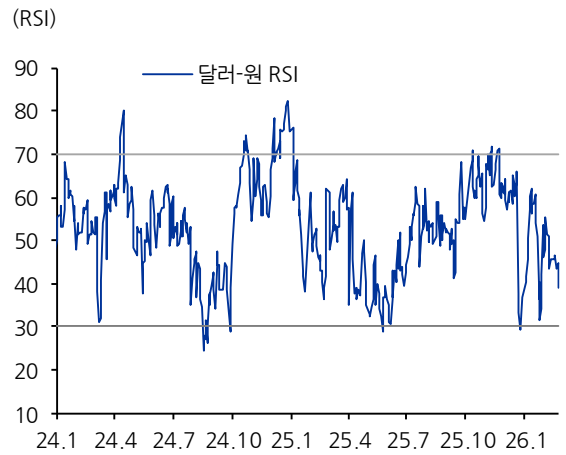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2/2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29.40	-0.9%	-1.1%	-0.7%
	달러지수	97.70	-0.2%	0.0%	-0.6%
	달러/유로	1.181	0.3%	0.2%	0.5%
	위안/달러(역외)	6.85	-0.4%	-0.6%	-1.9%
	엔/달러	156.46	0.4%	1.1%	-0.1%
	달러/파운드	1.355	0.4%	0.4%	0.7%
	헤알/달러	5.13	-0.6%	-2.1%	-7.1%
상품	WTI 근월물($)	65.42	-0.3%	0.4%	13.9%
	금 현물($)	5,152.75	-0.2%	3.4%	19.3%
	비트코인($)	69,220.00	7.2%	4.4%	-21.2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-13.10원 하락한 1,429.40원에 마감(야간 1,427.80원).
- 달러-원은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(-1.2조원, 거래소 기준)에도, 수출업체 물량 공세 영향으로 하락. 달러-원은 지난해 연말(1,429원) 수준으로 회귀.
- 아시아장에서 엔화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던 만큼 국내 달러 공급 요인이 주도. 월말을 맞아 중공업 및 수출업체의 대기 물량이 대거 환전되며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.
- 반도체 부문의 견조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유입된 대규모 환전 수요와 역외 동반 매도세가 더해지며 환율 하단을 낮추는 모습.
- 금일 한은 금통위 예정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는 BOJ 위원 인선과 위험선호 회복 속에 약세.
- 일본 정부가 비둘기파적 성향의 인사를 신임 위원으로 지명하자 금리 인상 지연 우려에 달러-엔은 2거래일 연속 오르며 2/9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. 다만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에 상승폭은 제한됨.
- 뉴욕 증시는 앤트로픽의 협력 발표로 AI 관련 불안이 해소되며 강세,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된 점도 달러화 약세를 유도.
-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시간 외 거래에서 +4% 상승.